

명성스님 학문세계 '후학의 모범'

고희기념 '불교학 논문집' 발간

비구니 위상·선 등 다룬 논문 26편 수록

철심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몰두해 왔던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사진)의 고희를 맞아, 스님의 덕과 학문세계를 기린 <불교학 논문집>(운문승가대학출판부)이 나왔다. 스님은 지난 98년 동국대에서 유식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끝없는 학문에의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수십년동안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수많은 학인을 지도하며, <초기유식의 연구> <구사론대강> <불설삼천불명경> 등의 저서와 역서를 발간, 후학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번 논총에는 국내 원로 및 중진 불교학 학자들의 논문을 비롯해 모두 26편의 논문과 2편의 번역문이 실려 있다. 특히 명성 스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비구니 위상 문제와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과 선·화엄·전대·수행·



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게재됐다. 운월(동국대 강사) 스님은 '보리달마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와 선종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외별전·불입문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수행의 단계와 차례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스님에 따르면 불수문교(不隨文教)란 교학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행에 들어가서는 경구를 생각하여 분별하지 말라는 것, 따라서 운월 스님은 "강원에서 <능가경> <유식론> <금강삼매경> 등 수행의 참 모습이 담겨 있는 경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르다 렉시 소모(하와이대 박사과정) 스님은 '비구니 율장은 성차별인

가'란 논문에서 비구니를 차별하는 일부 계율들은 성적인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비구·비구니 승단을 보호하려는 당시 사회 상황이 초래한 부득이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불교계의 차별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구니 팔경법'은 계율도 아니고 그와 같은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성(스리랑카팔리불교대 한국분교 교수) 스님의 '포살과 팔재법(八齋法)에 관한 고찰'은, 포살은 교단의 규율과 질서 유지는 물론 사회 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계율을 강조한 논문이다. 스님은 "한국은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포살의 본래 의미의 팔재법의 전통을 잃고, 오히려 지제와는 정반대의 측제 행사로 변질됐다"며 "불교의 이상 사회는 제도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들이 불가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릴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17일 운문사 만세루에서 열린 논문집 봉정식에는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명성 스님 고희기념전도 함께 열렸다.

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ia.com)

사찰 편역을 찾아서

석전의 화엄사·금산사 편역

석전 황욱(石田 黃旭/1898~1993)은 전라북도 고창 출생으로 5살 때부터 한학을 익히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여, 1920년부터 10여 년 간 금강산 돈도암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하였고, 1930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신위(申維 1769-1845)를 사숙하며, 육예(六藝: 禮·樂·射·御·書·數)를 익혔다고 한다. 이후 석전은 나이 70이 넘는 1973년에야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는데, 그는 60대에 서예가로는 처음적인 오르손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붓을 잡고 쓰는 악필(握筆)을 시작하여, 마침내 독창적 경지를 이루어냈으며, 85세부터는 오른손의 악필도 곤란하여 좌수서(左手書)로 마지막까지 창작에 대한 열정을 굽히지 않았다.

석전은 일체의 기교를 멀리한 심법(心法)으로 글씨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데서 알 수



◇ 화엄사 산문 편역



◇ 금산사 대적광전 편역

화엄사 원손으로 쓴 석전 행서

대적광전 정방형 4자 전각 편역

있듯이 그는 말뚝에 이르도록 함에 은거하면서 오로지 선비로서의 인품을 지켜온 서예가였다. 석전이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는 않지만 구례 화엄사 일주문(지리산대회암사), <해동선종대가람>,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편역 등 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찰에 남아 있다. 구례 화엄사 산문에 걸린 <지리산대회암사> 편역에는 액판(石田)이라는 도사가 적혀 있다. 이 편역은 1986년 정각이 전소된 후 전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1990년에 석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역의 글씨는 역시 노경의 선비를 연상하게 하는 웅건(雄健)한 좌수(左手), 악필(握筆)의 행서이다.

원손으로 써낸 담백한 행서로, 기교를 넘어서 웅건(雄健)한 글씨이다.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편역은 흔하지는 않지만 4자로 된 전각의 편역에 더러 있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액판 좌측에 한 줄로 '금강산인 구삼옹석전황욱(金剛山人 九三翁石田黃旭)'이라는 관지와 '황욱장수, 석전(黃旭長壽, 石田)'이라는 도사가 적혀 있다. 이 편역은 1986년 정각이 전소된 후 전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1990년에 석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역의 글씨는 역시 노경의 선비를 연상하게 하는 웅건(雄健)한 좌수(左手), 악필(握筆)의 행서이다.

인병인(대한불교진흥원)

학술단신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잡(雜) 다시 읽기'를 주제로 제16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최재복 교수(영남대 철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규태 강사(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등이 토론한다. (02)744-1541

논문집 '석굴암 신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는 <신라 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21집을 발간했다. '포함한 석굴암의 신연구'를 다룬 이번 논문집에는 '석굴암의 정치·사회적 배경', '석굴암의 건축 원형', '석굴암에 대한 연구사 검토' 등 10여 편이 실렸다. (054)770-2502

"미륵사 3금당은 평화 상징 황룡사 9층탑은 통일 의지"

노중국 교수 '엑스포 학술대회'서 제기

백제가 미륵사에 3개의 금당을 짓고, 신라는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9월 29일 개최한 제2회 경주문화유산EXPO 학술대회에서 노중국(계명대) 교수는 "백제는 평화적 공존을, 신라는 혁명적 통일을 기원했다"는 대답을 제시해 주목된다. 3금당의 미륵사를 세운 백제 무왕은 고구려·신라·수·당·왜 등과 실지양단의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는 데 주목한 노 교수는 "실지양단 외교정책은 주된 국가와의 세력 균형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미륵사는 무왕이 세운 호국사찰인 만큼, 그의 정치철학이 충분히 반영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특히 미륵사의 3금당이 하나의 회랑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고고학적 발견을 강조하고, "이것은 주변 국가와의 공존과 세력균형 즉, 문화세계의 열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룡사 9층탑을 지었던 선덕여왕 역시 말갈·왜·고구려 등에게 빈번히 침략당했고, 급기야 642년에는 미후성 등 40여성

을 빼앗기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신라는 종래의 세력균형 의식을 버리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통일 의지'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홉 개의 이러한 의지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9층탑은 당시 백제를 위협했던 일본(1층), 중화(2층), 오월(3층), 탐라(4층), 응유(5층), 말갈(6층), 단국(7층), 여진(8층), 예맥(9층) 등을 뜻하며, 9층탑은 9개 주변국의 항복과 천하통일의 의지인 셈이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가 '동아시아 역사와 21세기 문화교류'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학술 회의에는 7세기의 신라서역 유물 발굴을 주제로 '김산현 동국대',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노중국·계명대)', '신라를 통해 본 신라의 국제관계(권기현 위덕대)', '삼국유사·삼국사기 테마파크까지(이정옥 위덕대)', '문화교류와 관광의 역할(정원일·김규호 경주대)' 등의 논문도 발표됐다. 연구소는 이들 논문을 모아, <경주세계문화EXPO 논총> 제2호를 발간했다. 오종욱 기자

동화사 성보박물관 개관

대구 불교계를 대표하는 팔공산 동화사가 20일 성보박물관을 개관한다.

1998년부터 15여8천여 만원을 들여 통일대불 앞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박물관을 세운 동화사는 제1507년 개산대제(開山大祭)를 맞아 90여 평의 전시실을 공개한 것. 이 전시실에는 대구시문화재자료 제26호인 사명대사의 영정을 비롯해 소형금동불상, 대형 수저, 도장류, 불교의식용구와 '영남 치영아문(嶺南齋齋牙門)' 현판 등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의 유물을 중심으로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 가운데 높이 1.3m 내외의 나무로 만든 인왕상 한쌍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데다 조각솜씨도 뛰어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개관을 준비해 온 혜성스님(동화사 재주)은 "현재의 전시실은 동화사가 갖고 있는 주요 유물의 30%도 전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80여 개의 말사 소장 유물까지 들어 올 경우 전시실 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며 "전시실 규모를 더 넓히는 한편, 지하 1층은 평화 전문 전시실로 꾸밀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사명대사 유적

홍제암-부도·석비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9월 28일 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 홍제암과 사명대사부도 및 석장비를 보물 제1300·1301호로 지정했다.

보물 제1300호로 지정된 홍제암은 1614년(광해군 6년) 해구 스님이 사명대사의 진영을 봉안하기 위해 가야산 해인사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립한 영당(影堂).

영당은 인법당(人法堂)형식의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인법당과는 달리 사명대사와 관련된 조사전·영각·홍각 및 지장전 등 여러 기능의 공간이 추가로 집합되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공자(工字)형 건물이다.

보물 1301호로 일괄 지정된 사명대사 부도는 조선 후기의 조형미를 물씬 풍기는 석조형 부도. 또 석장비에는 "만력사십년십이월립(萬曆四十年十二月立)"이라는 기록이 있어 사명대사의 부도에 딸린 탑비로 1612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종욱 기자

"의천스님 탄생지 궁중 아닌 인천 외가"

이형석 박사 주장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탄생지가 '외가 인에태후의 생가(현 부천군 관교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9월 28일 '대각국사 의천 탄생지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이형석(미추문화연구원) 박사는 "스님의 어머니인 인주이씨 가문 출신의 인에태후의 생가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인천 외가 탄생지'의 근거로 <인천부사>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들고 있다. <인천부사>에는 "인에태후 이씨의 고향을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 대각국사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 박사는 <고려사절요>에서 고려의 왕들이 외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기록을 토대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외가인, '인천 경원군의 별궁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각국사의 탄생지는 대각국사비문에 따라 궁중으로만 추정된 편, 정확한 장소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오종욱 기자

(대한민국 통일시대전선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양철학의 조부자 및 영예에 중시하는 본들에게 다시없는 기회로서 신현법도사 기고 후천법도사 동양근원철학으로 인격신성과 수명재신건강 관리를 보충할 수 있는 법과 현대과학과 한방으로도 지류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심연의 법과 열두띠의 자족인문사오미인유물해의띠가 들어갈수있는 명단 비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강의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비법의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의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으로 이어온 보물의 '경어보검'과 '일사보검'에 감추어진 명당비법 직강·장공법, 환천법, 팔호법, 산상계법 12생띠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 최정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진인육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보아도 눈과 몸이 보이는를 따라 다는 신출귀몰한 비법은 세태양의 운기로서 흥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곳과 흥한터, 수택지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지상 지니시어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시어.

몽맹정진 이천년 대운맞이 제59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에 동참하시어 자성보아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정진법회 새천년의 천지 창조이래 태양의 순례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연을 하늘의 천문도법인론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으로 새천년부터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운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0월 28일 10월 29일, 자시와 오시에 360세까지의 중상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갖대를 얻어 중운 180세 하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병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그린 법도로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장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병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영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게 못하면서 제대대로 지겨리는 잡도에 끌리어 눈먼거북의 종행 등따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죽으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축, 법적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권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잠신에 끌리어 억망진장을 왜 모으며 지각이 변동되었는데 하늘이 아무나 떠들어 대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몸이 태산같은 중병과 육신과 명예의 상득을 벗고 먹지 않아도 살이 쪼는 약병과 사람답게 사시는 진인육경신 도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문이 열리는 영봉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천문이 열리는 말이므로 몸이 천병, 잠신, 살이 쪼는 병과 도통군자들과 수명이 늘어나고, 먹는것 자유자재하며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도통군자, 사명자, 진인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 입 재 : 양력 10월 28일 밤10시부터 10월 29일 亥時까지
-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토요일 밤 일제
- 온라인 : 동협 029-01-167866 24시간 선착순 일요일만 해제
- 전화 : 02) 821-6622 /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랑선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 25, 95, 26, 303, 26, 142, 26-3 모지원고개 하차)

雄祖. 진인육경신도통회장 天龍 泰日法師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眞人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일생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하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불전과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승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원사 시리 저음, 범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